

2030년 도시, 광주과학관서 미리 만나세요

광주과학관 여름방학 행사

‘미래도시’ 공동 기획 특별전
자율주행·사물인터넷 체험
이달까지 미래뉴스 공모전도

여름방학을 맞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2030 미래도시’ 특별전이 진행중이다.

이 전시는 첨단 과학기술과 함께 도래할 미래세상을 상상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이 최초로 공동 기획했다.

‘2030 미래도시’ 특별전은 ‘로봇, 인공지능, 증강현실,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음성인식’ 등 다양한 체험으로 꾸며진다.

전시는 ‘미래의 집·거리·산업’ 총 3가지로 구성돼있다.

‘미래의 집(Future Home)’은 친환경, 스마트 기술로 변화된 미래의 집을 보여준다. 가사 도우미 로봇, 미래의 다양한 뉴스를 살펴보는 인포메이션 벽, 교과서가 사라진 공부방, 스마트 헬스케어침대, 가상 피팅 드레스 룸, 스마트 화장대와 스마트 화장실, 가상요리사, 3D프린터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 등을 체험해볼 수 있다.

‘미래의 거리(Future Street)’ 드론과 자율주행 자동차로 달리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의 거리를 보여준다. 도로에서는 걷거나 달리면서 충전하는 스마트 도로, 자율주행차 탑승주행과 패스널 모빌리티



지난해 여름 국립광주과학관에 개장한 물체험장을 이용중인 시민들의 모습. 올해는 오는 21일 개장할 예정이다. <광주과학관 제공>

체험, 다양한 종류의 역할 드론과 드론 시뮬레이터, VR을 통한 드론비행 체험 등을 통해 미래 중요한 교통수단인 드론에 대해 체험해 볼 수 있다.

‘미래의 산업(Future Industry)’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래의 산업을 소개한다.

거대한 인공지능 구조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미래의 모습과, 다양한 미래의 직업과 산업에 대해 살펴보고, 인공지능 의료시스템을 엿볼 수 있는 의료 산업, SF영화로 보는 미래도시, 잘못된 전문가의 미래예측, 인공지능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해 연주해보는 제

험을 할 수 있다. 전시는 오는 9월까지며 관람료는 6000원이다. 문의 062-960-6210.

‘2030 미래에서 온 뉴스 공모전’은 ‘미래에는 A, B, C, D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뉴스나 신문에 실리게 될 거야’라는 미래세상을 상상해 표현해보는 공모전이다.

대한민국 거주중인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해 뉴스나 신문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오는 21일부터는부터 한 달간 물체험장을 운영한다. 물체험장은 더운 여름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휴

식과 즐거움의 공간을 제공한다.

물체험장에는 0.9m높이의 청소년폴과 0.7m 높이의 유아폴이 있어 관람객들이 연령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샤워실, 탈의실, 테이블, 그늘막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물 체험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초등학생 미만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3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소비자 단체·기업 참여 ‘통신비 인하’ 논의기구 만든다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다뤄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정국회 회기 중인 올해 10월 전후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17일 통신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정부 기관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하순 발표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결정에 맞춰 통신비 인하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준비중이다.

이 기구는 정부가 추진중인 통신비 절감 대책 중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추진, 단말기 유통 혁신 방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룰 예

정이다.

다만 심의나 의결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국회나 정부가 입법·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정국회 회기 중에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회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참여자 선정 기준 등을 구상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기 제조

사,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포털이나 동영상 업체 등도 이 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계청 기준 가계통신비에 포함된 ‘서비스요금’(통신서비스요금)이나 ‘통신장비 비용’(단말기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외된 콘텐츠 사용료도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계통신비 중 꽤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다.

통신비 인하 아이디어로 종종 거론되는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에 한해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가 아니라 콘텐츠업체나 통신사가 부담하는 제도)을 논의하는 데 이 쪽 업계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도 있다.

이 기구의 구성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행정부가 주관할지, 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부가 주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국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고 미래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참여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구 구성 주관을 국회와 정부 중 어느 쪽이 맡느냐에 따라 전자의 경우 20~25명, 후자의 경우 15~20명이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미방위원회는 19일로 예정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끝난 후 이 문제의 본격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동차 검사 안내 카카오톡으로 고지

인터넷진흥원 업무협약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의 전자문서 이용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전자화하고,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바일 메신저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는 우편물을 통해 이뤄졌다.

과고지 및 지연고지로 인한 과태료 납부 등 국민불편을 해결하고, 연간 약 2000만 건의 종이 사용량, 약 45억원의 비용절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안내문의 송수신 정보를 다수의 관련 기관이 보관하는 ‘분산 유통중령 기술’을 시범적용해 전담기관에서만 유통이

력정보를 저장했던 중앙집중형 체계에 비해 신뢰성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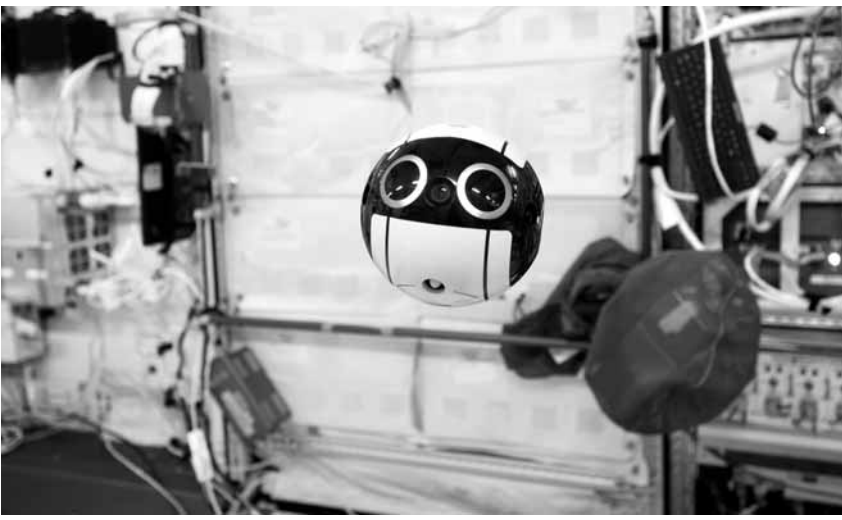
공인전자문서 유통서비스는 온라인으로 문서의 송수신과 본인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재 경찰청 안내서, 대법원과 재외공관 간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서울시의 세금납부 고지 등에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은 전용 이메일(삼메일)을 통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일반 이메일과 휴대전화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통 경로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관련 고시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데이터 자산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이자 엔진”이라며, “종이문서 등 과거 아날로그 방식의 정보들을 디지털화하는 노력을 통해 ‘데이터 디지털화’ 일자리 등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데이터 자산의 활용가치도 함께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기자 ej6621@



깜찍한 ‘우주 탐사 드론’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우주 탐사 드론 ‘인트볼’(Int-Ball)의 영상을 최근 공개했다. JAXA는 장기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우주 드론을 이용해 우주정거장이나 우주선 등의 유지 보수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독신 치매 위험 기혼자보다 42% 높아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과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은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대 정신과 전문의 앤드루 소머레드 박사 연구팀이 65세 이상 총 80여만 명이 대상이 된 연구 논문 14편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노인은 결혼한 여성에 비해 치매 유병률이 4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머레드 박사는 밝혔다.

또 배우자를 여든 노인도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치매 유병률이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혼한 노인은 치매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결혼한 사람에 비해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의 빈도가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고 소머레드 박사는 말했다.

/연합뉴스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한샘가맹점

(싱크,불박이,욕실,마루,창호,도어)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062-522-0482